

설교윤리와 윤리설교: 교회됨을 위한 모색*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설교윤리, 윤리설교, 그리고 교회됨의 윤리

1. 설교윤리와 윤리설교: 설교와 윤리의 만남
2. 교회됨의 맥락에서 읽는 설교와 윤리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5>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

Hauerwas and Campbell on Ethical Preaching for ‘Being Church’

Moon, Si Young(Namseou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preaching as a fundamentals of church in ecclesial ethics of Hauerwas and the concept of ethical preaching in Charles L. Campbell who influenced deeply from the ethics of Hauerwas. Preceding studies on combination of preaching with ethics by theologian of homiletics have a tendency to relate the ethical preaching with the research ethics of preachers. Though it is an unsatisfactory part to regard ethics of preachers as the problem of ‘cheating act’, it is a meaningful step to activate meeting of sermon and ethics.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ethics of preachers and seek the ethical preaching. In this context, it is worth noting that Hauerwas and Campbell suggest the ethical preaching for building up the church. For Hauerwas, ethical preaching for being church connected with the pastor’s ethical responsibility. Hauerwas emphasizes that pastors have to build up Christian as Christian based on Jesus narrative. Campbell receives the issue of being church and expresses it more positively. Campbell considers the combination of ethics and preaching as connected with being church. According to Campbell, preaching is an ethical practice for building up church based on Jesus narrative. Hauerwas and Campbell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ethical maturity of Korean church which tend to cling to blessing preaching and prosperity theology.

Key words: Being Church, Ecclesial Ethics, Ethics of Preacher, Ethical Preaching, S. Hauerwas, Charles L. Campbell.

I. 들어가는 말

교회의 급선무를 ‘교회됨’(being church)이라고 강조하는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는 예수 내러티브에 관심하면서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해 ‘교회다운 교회됨’으로서의 기독교공동체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¹⁾ 교회가 현대문화와의 콘스탄틴적 결탁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을 통해 오늘의 교회를 위한 자성과 자정을 촉구한 점에서 교회윤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통찰일 수 있겠다. 특별히, 포스트 종교개혁 500주년의 교회를 위한 윤리적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회윤리가 지닌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다만, 교회됨의 윤리가 실천을 위한 전략 혹은 방법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소중파적 경향 내지는 자폐적 교회관에 기울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교회됨의 실천전략이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²⁾ 이 글은 ‘설교’와 ‘윤리’의 만남을 교회됨의 실천전략으로 상정하면서,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설교에 대한 윤리학적 관심 및 그의 영향을 받은 설교학자 캠벨(Charles L. Campbell)의 윤리설교 개념 사이에 공유되는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
- 1)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다룬 다음 글들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기독교사회윤리』21집(2011), 7~30,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21집(2011), 31~70, 문시영, “한국교회,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의 응용,” 『기독교사회윤리』31집(2015), 39~63.
 - 2) 지금은 에버딘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듀크대학에서 만났을 때 교회됨의 실천전략을 묻는 필자에게 하우어워스는 ‘전략(strategy)’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을 꾸리기보다 덕스러움에 관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듯싶다.

II. 설교윤리, 윤리설교, 그리고 교회됨의 윤리

1. 설교윤리와 윤리설교: 설교와 윤리의 만남

설교와 윤리의 만남은 ‘설교윤리’ 혹은 ‘윤리설교’라는 개념에 해소되곤 한다. 이 개념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다. 설교자의 윤리를 다루는 것인가? 설교행위 그 자체에 반영해야 할 윤리에 대한 관심인가? 혹은 윤리 문제에 관한 설교를 말하는 것인가?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설교에 대해 제시될 수 있으나, 설교학자들의 전문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설교와 윤리의 만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학에서도 나름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잠정적으로, ‘설교윤리’와 ‘윤리설교’의 구분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상호보완적 개념들이겠지만, 현상적으로는 구분된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설교윤리는 주로 설교자의 윤리와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연구윤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기 쉽다. 설교도용의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정직성의 위배, 설교작성 능력의 퇴보 초래 등을 지적한 김금용에 따르면, 도용된 설교는 이미 설교일 수 없다.³⁾ 나아가, 설교의 위기가 초래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설교자의 설교이해 부족, 설교와 삶의 불일치, 설교의 목회수단화 등을 우려하며 설교자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설교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설교학자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만, 설

3)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4집(2007), 125~152.

4)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설교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7집(2013), 129~158.

교도용과 표절 문제에 관심하는 것은 ‘연구윤리’가 규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주를 설교학의 맥락에서 재론한 듯싶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설교의 독특한 의의를 충분히 반영한 논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사실, 설교도용을 비롯한 문제들은 연구부정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일 수 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책임의 문제를 넘어, 복음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비전이 결부되어야 할 듯싶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자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흥미와 함께 아쉬움을 남긴다.⁵⁾ 설교윤리의 지평을 확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격개념을 협소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인격의 조화, 영성과 인성의 균형,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도덕적 실천을 과제로 제시한 점은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론적 요청사항들을 나열한 것이기 쉽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설교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글도 있다. 설교자의 해석학적 자기기만, 설교의 표절과 관련된 실천적 자기기만, 그리고 본문선택에서의 자기기만을 고발한 날카로운 설교자의 자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⁶⁾ 다만, 설교자에게 요청되는 자성의 과제를 설교준비의 충실성과 설교자의 인격적 성숙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설교자에게 의무론적 책무사항들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설교윤리’가 연구윤리와 중첩되거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윤리설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축복설교’ 혹은 ‘교리설교’라는 표현처럼, 설교의 ‘장르’(genre)를 말하는 것일까? 잠정적으로, 윤리문제에 대한 설교 혹은 윤리적인 내용을 가진 설교를 윤리설교라고 불러도

5) 이현웅,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실천』53집(2017), 89~120.

6) 김지혁, “설교자의 자기기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49호(2016), 135~157.

무방할 듯싶다. 예를 들어, 설교가 윤리 행위를 촉구하는 설교를 지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⁷⁾ 이쉬움 또한 적지 않다. 윤리 행위를 촉구하는 설교로서의 인물설교에 대한 관심을 제언하는 부분에서, 주로 개인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공동체적 관심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몇 가지 이쉬움에도 불구하고, 설교학자들이 윤리에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고무적이다. 설교윤리 혹은 윤리설교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어쨌든,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설교윤리와 윤리설교를 구분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엄밀한 구획짓기가 아니라 이 글이 지향하는 더 큰 논의를 위한 예비단계에 속하는 과정이었다. 사실, 설교윤리와 윤리설교는 상호보완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설교자의 윤리’와 ‘윤리를 권면하는 설교’를 통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교와 윤리의 만남을 기능적 접촉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설교와 윤리의 만남을 활성화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심화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이 글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설교윤리를 준수하고 윤리설교를 실천하라.’

2. 교회원의 맥락에서 읽는 설교와 윤리

설교윤리를 준수하고 윤리설교를 실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글은 특히 윤리설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 윤리설교에 관심하면서 풀어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대변된다. ‘왜(why?), 윤리설교를 실천해야 하며, 어떤(which?) 윤리를 설교할 것인가?’ 두 질문은 이 글의 문제의식을 ‘필요’와 ‘충분’의 관점에서 대변해준다. 이

7) 조상현, “윤리적 행위를 촉구하는 설교,” 『설교한국』4-1집(2012), 118~152.

러한 문제의식을 풀어낼만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설교학자 캠벨과 윤리학자 하우어워스의 만남이 그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설교 윤리 혹은 윤리설교의 기능적 개념구분을 넘어 시너지를 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⁸⁾

설교와 윤리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동시에 윤리설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논의는 이 글이 추구하는 문제의식을 필요충분의 관점에서 해소할 근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축복설교’ 혹은 ‘변영의 복음’에 물든 한국교회의 강단을 성숙시켜야 할 필요도 분명하고 시민적 지탄에 내몰린 교회의 윤리적 자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하지만, 그것이 윤리설교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윤리설교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윤리를 설교할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의무론적 책무들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설교 혹은 설교를 통해 개별행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한국교회의 부도덕한 사례들을 폭로하는 것으로는 윤리설교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윤리적 성숙 혹은 해야 할 일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윤리에 관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움’과 ‘교회됨’(being church)의 관심이 윤리설교의 충분조건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와 캠벨이 교회됨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설교를 통한 실천을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⁹⁾

8) 참고로, 듀크대학 설교학교수로 재직하는 캠벨은 듀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당시 윤리학을 가르치던 하우어워스의 지도를 받았다. 캠벨의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Eugene, OR: Wipf & Stock Pub, 2006)는 캠벨의 학위논문을 출판한 것으로서, 한스 프라이를 다루고 있지만 하우어워스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

1) 왜, 윤리설교? 교회됨을 위한 윤리행위로서의 설교

왜, 윤리설교를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주목할 것은 ‘실천’이라는 요소이다. 설교의 중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설교를 중요한 ‘윤리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는 윤리와 무관하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윤리를 선포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 설교 자체가 중요한 윤리적 행위에 속하며 설교를 통해 교회됨을 구현할 수 있다는 관점인 셈이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은 윤리설교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 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설교처럼 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행동들도 급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¹⁰⁾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이라는 표현은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의 윤리에서 말하는 교회의 ‘펀더멘탈’(fundamentals)을 지칭한다. 하우어워스는 예배와 설교 및 성만찬과 세례를 포함한 예전들을 교회의 펀더멘탈이라고 인식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오락 요소가 예배에 침투한 정황을 극복할 대안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예전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신학자의 이론

9) 캠벨의 설교학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운용, “전환기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사역을 위한 실천신학적 탐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36집(2009), 263~302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김운용은 캠벨의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도 번역했다. (번역서에서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을 소개한 점에 대해, 하우어워스의 번역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의 지도를 받은 논문으로 김양일, “실천신학적 접근에 의한 한국교회 설교현장 분석과 윤리적 설교 실행에 관한 연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46집(2016), 117~139도 참고할만하다. 캠벨의 설교학에 대한 연구 중에 오승성, “찰스 L. 캠벨의 탈자유주의적 설교학의 의의와 한계,” 『신학과 실천』26-1호(2011), 287~321 역시 중요한 선행연구이다. 이들의 선행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캠벨에게 삼투된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박성환, “성품 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Charles L. Campbell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중심으로,” 『설교한국』3-2호(2011), 9~45는 캠벨에게 미친 하우어워스의 영향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10) Stanley Hauerwas, / 홍종락 역, 『한나의 아이』(서울: IVP, 2016), 378.

혹은 교회 밖에서 침투한 엔터테인먼트에 휘둘리기보다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본질회복을 통해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할 때 교회됨이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¹¹⁾

그의 제안은 설교자로서의 목회자 및 설교의 회중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동체적 인식을 요청한다. 사실, '목회윤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기능적 맥락 혹은 개인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목회자 개인의 도덕적 일탈과 윤리의식을 문제 삼는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목회자로 임직되면 탐욕(성욕, 식탐, 명예욕, 성직권력욕 등)에서 초연한 성자가 되거나 혹은 탁월한 도덕의식을 가진 존재이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은 목회윤리라는 크고 중요한 개념을 목회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 혹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다. 목회자 개인의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일탈과 부도덕의 문제들은 실정법의 단죄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다는 점에서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무게는 더욱 중하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목회윤리를 비난과 처벌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 내러티브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비전과 연관지어 인식해야 한다. 하우어워스에게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¹²⁾ 하우어워스를 따라 설명하자면, 목회자는 특히 설교자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이끌어갈 책무를

11) 이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권(2012), 281~301. 여기에서 언급한 '펀더멘탈은 근본주의 혹은 과거회귀적 뉘앙스가 아니다. 매스컴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든든하다'고 하는 경우에 가깝다. 교회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서의 예배와 설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12) 이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시영, "공동체적 맥락에서 본 목회윤리와 덕의 문제," 『장신논단』 41집(2011), 215~235.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회중은 설교의 청중으로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됨을 추구하며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복음적 성품을 함양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말씀사역과 예전을 통한 목회의 공동체적 사명을 바르게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윤리의 핵심이 되는 셈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목회자의 책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집례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매주 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정체성과 성품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이라는 공동체적 직임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말씀과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되기 때문이다.¹³⁾

말씀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목회자의 윤리적 성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목회자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교회됨, 즉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적 과제를 지닌 존재이다. 교회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고유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¹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제대로 베풀어지는 곳에서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백성이 세워진다는 하우어워스의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¹⁵⁾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성품화시키는 훈련장으로서,¹⁶⁾ 예배를 통해 예수 이야기를 듣고 전수하며 예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13)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Grand Rapids, MI: Brazo Press, 2001), 161.

14)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161.

15)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서울: 복있는 사람, 2008), 196.

16)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 168-74.

인다운 성품을 함양해야 하는 공동체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우어워스에게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덕의 사람을 육성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이다.¹⁷⁾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성품을 지칭한다. 핀치(Pinch)의 표현을 빌려 하우어워스의 윤리설교에 대한 인식을 풀어내자면, 윤리설교는 교회됨을 위한 실천에 속한다. 기독교공동체에 있어서 윤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설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윤리는 이론으로서의 윤리도 아니고 응용으로서의 윤리도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공유하는 용어와 서술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재고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윤리이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체의 도덕성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⁸⁾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관점은 캠벨에게 수용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캠벨에게서, 설교와 윤리의 만남은 교회됨과 한 세트를 이룬다. 캠벨의 표현에 따르면, 설교는 교회됨의 표지(mark)이다.¹⁹⁾ 설교는 비범한 윤리적 함의를 지니고 수행하는 행위이며,²⁰⁾ 설교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적 실천’(an ethical practice)이다.²¹⁾ 설교를 중요한 윤리적 행위라고 말하는 캠벨의 인식은 설교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관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캠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깊이 삼투된 하우어워스의 영향을 참고해야 한다. 캠벨의 학위논문이 한스 프라이(Hans Frei)를 연

17) Charles L. Campbell/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76.

18) Charles Pinches, “Proclaiming: Naming and Describing,” in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4), 180.

19) Charles L. Campbell/ 김운용 역,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 168.

20) 같은 책, 166.

21) 같은 책, 185.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²²⁾ 그 저변에 하우어워스의 관점이 숨은 영향력으로 자리하고 있다.²³⁾ 실제로, 캠벨의 설교학 여기저기에 하우어워스의 관점들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하우어워스가 제시하는 교회됨의 인식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찌 보면, 캠벨의 설교학은 설교와 윤리의 만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교회됨의 윤리에 대한 인식은 캠벨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우어워스의 흔적이다. 설교가 교회됨의 중요한 통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과 그 바른 회복을 촉구하는 하우어워스의 목소리가 캠벨에게서 울려 퍼지고 있는 셈이다. 교회됨을 위한 하우어워스의 윤리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캠벨은 설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설교는 신약에 ‘오이코도메’로 표현된 ‘교회를 세움감’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윤리설교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캠벨이 ‘교회됨을 위한 목회자’(minister as a church-builder)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⁴⁾ 요컨대, 설교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윤리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캠벨의 관점은 설교에 대해 마치 사회변혁을 위한 현실참여와 동급의 레벨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싶다. 현실에 대한 참여적 행위의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려는 태도’를 순진한(naive) 것으로 몰아세우기 쉬운 경향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22) 김운용, “전환기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사역을 위한 실천신학적 탐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36집(2009), 279~281.

23) 이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성환, “성품 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Charles L. Campbell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중심으로,” 『설교한국』 3-2호(2011), 9~45.

24)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345~350.

캠벨이 설교를 윤리행위로 상정하면서 그 목적을 교회됨에 두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편더멘탈에 관심하면서 설교의 중요성과 예언자적 말씀사역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 역시 그 목적이 '교회됨'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어떤 윤리? 복음의 증인됨을 위한 덕 윤리

윤리설교가 교회됨을 위한 윤리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윤리를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리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어색한 표현일 수 있지만, 현대윤리학에서 말하는 '의무의 윤리'(ethic of duty 혹은 의무론)와 '덕의 윤리'(ethic of virtue 혹은 덕론) 사이의 구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²⁵⁾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가 계몽주의적 기획에 기초한 의무론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덕 윤리의 재론을 제안했던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덕 윤리는 맥킨타이어의 관점을 수용하여 신학 안에서 재조명하는 시도로서, 윤리의 관심을 '행위'(doing)에서 '존재'(being)로 전환시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과 교회됨의 가치에 주목했다.

설교와 윤리의 만남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윤리설교의 덕 윤리적 배경과 비전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설교가 지향하는 윤리는 율법주의적 혹은 의무론적 책무를 요청하는 윤리개념을 넘어선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에게서 볼 수 있는 설교와 윤리의 만남은 성품과 덕, 그리고 공동체의 관점을 배경으로 삼아 교회됨을 그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러

25) 덕 윤리와 의무의 윤리 사이의 구분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After Virtue*에서 맥킨타이어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현대윤리학의 논변을 지칭한다. 그리고 덕 윤리의 기독교적 버전 혹은 신학적 전개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하우어워스를 꼽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Joseph J. Kotva, Jr./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서울: 궁핍, 2012).

한 뜻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 윤리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교를 통해 회중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윤리설교라 할 수 없다.

우선, 설교자에 대한 인식에서 캠벨의 관점은 중요한 통찰을 준다. 캠벨에 따르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교인들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며 죄책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설교자는 회중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때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세상 권세에 대해 저항하는 동역자이다.²⁶⁾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개인을 비난하는 자이어서는 안 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목에서 설교자로서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교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윤리설교에 대한 관점도 캠벨에게서 주목할 부분이다. 그가 윤리설교를 강조한 것은 오늘의 교회에서 시행되는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캠벨은 현대의 '설교학적 이단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대의 교회와 설교를 문제 삼는다.²⁷⁾ 특히, 세상의 공격성과 도덕적 악영향에 적절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설교를 윤리와 무관한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설교란 말씀의 올바른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함양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윤리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교자의 직임에 대한 인식과 윤리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캠벨이 예수 내러티브에 주목했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하위어워스의 교회됨의 윤리가 캠벨의 설교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윤리설교는 회중 개개인의 윤리를 '디스하는 차원을 넘어 회중을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성품의 존재로

26) Charles L. Campbell,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 208.

27) 같은 책, 166.

변화시키는 윤리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캠벨은 윤리설교의 기준을 예수 내러티브에 맞춘다.

특히, 산상설교에 대한 해석에서 캠벨은 요더(John Howard Yoder)와 하우어워스의 윤리관을 계승하면서 그 통찰을 설교학에 적용한다. 무엇보다도, 비폭력 평화에 대한 강조는 캠벨의 윤리설교에서 핵심적 주제이다. 캠벨은 예수께서 지배체제 속에서 침묵과 폭력을 거부하고 설교를 통해 세상의 권세자인 자본주의와 기술문명에 강하게 도전했다고 보았다.²⁸⁾ 이러한 뜻에서, 설교는 예수께서 보여준 길을 따르는 것이요 '제자도'에 속하는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²⁹⁾

캠벨의 윤리설교 개념에 나타난 하우어워스의 흔적은 윤리설교가 도덕적 비전을 심어주는 윤리행위라는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캠벨은 예수의 비전과 말씀은 성품윤리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우어워스에게 주목한다. 설교가 도덕적 비전을 형성하도록 훈련시키는 중요한 윤리적 책무에 속한다고 보는 셈이다. 캠벨이 비전에 관한 하우어워스의 관점, 즉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만 세상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은 중요한 예라 하겠다.

캠벨은 하우어워스를 발전시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상정한다.³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확장시킨 셈이다.³¹⁾ 캠벨의 인식, 즉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전함으로써 회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신실한 제자

28) 같은 책, 178.

29) 같은 책, 182.

30) 박성환, "성품 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23~24.

31) Stanley Hauerwas, 『교회됨』, 110.

가 되게 하는 실천행위라는 생각은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설교학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캠벨의 관점에 녹아있는 하우어워스의 흔적들에 대한 정밀한 추적이 아니다. 둘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요소, 즉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야말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요소이다.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는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로서, 설교에 관해서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하우어워스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 본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³²⁾ 설교가 말씀의 권위에 속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나는 설교할 때 자유롭게 즐겁다. 자유로운 이유는 내가 설교를 통째로 지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³³⁾

예수 내러티브로서의 성경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심 캠벨의 탈자유주의적(post-liberal) 설교학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우어워스의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캠벨에게서 프라이에 대한 성찰을 매개로 삼아 독창적인 관점으로 발전되고 있다. 캠벨이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preaching Jesus)이라고 규정한 것은 의의가 크다.³⁴⁾ 캠벨은 내러티브 설교로 대변되는 현대설교에서 나사렛 예수의 역할이 지나치게 작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도전적으로 반문한다. ‘좋은 비유만 있으면 예수는 필요 없는가?’³⁵⁾ 설교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듯싶다.

32) Stanley Hauerwas, 『한나의 아이』, 350.

33) 같은 책, 495.

34)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295.

35) 같은 책, 273.

캠벨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설교와 설교자들을 향한 의미 있는 도전이다. 예를 들어, 좋은 비유(좋은 내러티브)가 그 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결국 복음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고 말 것이라는 캠벨의 진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⁶⁾ 설교를 위한 예화와 유머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들이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거나 역전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설교 자화상에 대한 자성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의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는 복음에 입각한 성품함양을 지향한다. 하우어워스에게서 그리스도인됨이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을 통한 성화의 윤리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³⁷⁾ 캠벨 역시 그리스도인의 성품(character) 함양에 주목한다. 캠벨에 따르면, 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주며 성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예수 내러티브의 재진술이다.³⁸⁾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설교를 통해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성품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일 듯싶다.

이러한 노력은 '설교의 복음화'에 대한 촉구로 이해될 수 있겠다. 예수 내러티브를 설교의 또 다른 주제로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하우어워스의 경우,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의 증인됨으로서의 성화를 강조한다. 캠벨이 말하는 '프리칭 지저스'의 문제의식 또한 다르지 않다. 윤

36) 같은 책, 277.

37) 이 부분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시영, "복음의 증인됨으로서의 성화: 덕 윤리적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102집(2016), 143~166.

38) 김운용, "전환기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사역을 위한 실천신학적 탐구: 찰스 캠벨의 설교 신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36집(2009), 281.

리설교를 통해 성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요컨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윤리설교가 절실하다. 설교를 통해 특정한 개인의 윤리를 비난하거나 혹은 한국교회 전체를 디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복음의 증인됨으로서의 성화를 설교해야 한다.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윤리설교는 유머나 예화에 급급해하는 설교를 넘어설 궁극의 대안이다. 복음적 성품함양을 통해 교회됨을 추구하는 설교가 절실하다는 사실, 그것이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문제의식이었다.

3) 교회됨을 위한 윤리설교, 그 의의와 한계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리설교가 필요하되 교회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윤리설교는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복음의 증인됨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우어위스와 캠벨에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공유되어 있다. 교회됨을 위한 윤리설교라는 필요조건과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윤리설교라는 충분조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있는 셈이다.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닌 의의는 명설교가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의 설교관을 통해 대변될 수 있을 듯싶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참된 설교야말로 오늘의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며, 교회만이 세상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다룰 수 있고 설교자만이 이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문제는 설교가 교회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밀려난 데 있다.⁴⁰⁾ 로이드 존스가 19세기의 위대한 강단꾼들(the great pulpiteers)이 쇼맨십으로 회중의 감정을 자극하던 것을 비판하는가 하면 예배에 오락적인 요소가 늘어난 결과로 설교의 쇠퇴

39) 박성환, “성품 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30.

40) 같은 글, 33.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 삼은 부분 등은⁴¹⁾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요소라 하겠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다루는 것은 설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이 교회의 고유한 임무이다.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교회는 여러 매체 중 하나가 아니다.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곳도 아니며, 심리학자나 다른 사회단체와 경쟁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기관으로서,⁴²⁾ 설교를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선구자를 보는 듯싶은 관심들이 로이드 존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로이드 존스의 진단은 윤리설교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현대사회가 위기에 내몰린 것은 교회가 복음에 토대를 두지 않은 도덕과 윤리를 설교한 탓이다. 이것은 결국 경건 없는 도덕을 설교하는 결과를 낳았다.⁴³⁾ 우리의 관심사인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윤리설교와 연관을 짓는다면, ‘복음에 토대를 두지 않는, 경건 없는 도덕’을 극복해야 하며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윤리설교가 절실함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윤리설교에 관한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통찰은 축복설교와 번영의 복음을 선호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듯싶다. 윤리설교라는 새로운 설교 장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됨으로서의 윤리적 성숙을 추구하며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됨에 관심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하우어위스와 캠벨의 관점에 한계 내지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즉 자폐적 교회만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싶다. 하우어위스에게 그림자처

41) 같은 글, 32.

42) 같은 글, 56.

43) 같은 책, 60.

럼 따라다니는 ‘소종파적 퇴거의 위협’에 대한 비판은 윤리설교를 말하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신의 관점은 소종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하우어워스의 항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종의 DNA와도 같다. 소종파적 퇴거의 위협의 문제는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고 양측의 논변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호·불호(好·不好)의 문제일 수 있겠다.

또한, 윤리설교의 배경과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덕 윤리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윤리, 교회의 윤리개혁을 위한 윤리설교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덕 윤리에 집중하는 것은 의무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기 쉽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의무론 자체를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가의 논쟁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범위를 좁혀서, 윤리설교에 집중하여 예측되는 비판을 살펴보자. 설교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설교를 실천하라는 요구가 교회의 필수요소 혹은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교회의 윤리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은 분명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내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회됨이라는 윤리적 비전의 설정이 큰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윤리설교가 교회됨의 유일무이한 방법론인 것은 아니며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만능키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모든 설교를 윤리설교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이 설교를 중요한 윤리행위라고 적극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교회개혁 및 사회변혁과 관련한 실천방법론에서 ‘기도하고 설교하자’는 것 자체는 구체적 행동강령이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접근이거나 비겁한 궤변일 뿐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 문제 역시 양측의 팽팽한 찬반논변

속하는 논란거리로 열려있는 논제이기는 하지만, 윤리설교의 필요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한계들도 불구하고, 하우어워스와 캠벨의 윤리설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설교를 향하여 던져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III. 나오는 말

교회됨의 윤리를 위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에 못지않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또한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이 글은 포스트 종교개혁 500주년의 윤리적 비전을 교회의 교회됨에 맞춰야 한다는 맥락에서, 교회됨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하우어워스와 캠벨의 윤리설교를 살펴보았다. 교회됨의 문제의식이 하우어워스의 중심이 되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캠벨의 윤리설교 개념은 교회됨을 위한 윤리행위로서의 설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교회됨의 실천을 담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윤리학자 하우어워스와 설교학자 캠벨에게서 나타난 윤리와 설교의 만남 그 자체가 아니다. 설교의 복음화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을 통해 확인한 것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설교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수 내러티브에의 충실을 교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비전으로 확인해주는 셈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종교개혁 500주년의 관심사이어야 한다.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을 위한 기독교 덕 윤리가 캠벨의 성품의 성화를 위한 윤리설교로 접맥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윤리설교에 대한 관심이 하우어워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소중파적 퇴거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됨의 실천방안으로 충분한 제안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축복설교와 번영신학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윤리적 성숙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설교의 복음화를 통해 교회됨의 윤리를 구현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관심할 필요충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금용,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14집(2007), 125~152.
- _____,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설교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27집(2013), 129~158.
- 김양일, “실천신학적 접근에 의한 한국교회 설교현장 분석과 윤리적 설교 실행에 관한 연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46집(2016), 117~139
- 김운용, “전환기 한국교회를 위한 설교사역을 위한 실천신학적 탐구: 찰스 캠벨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36집(2009), 263~302
- 김지혁, “설교자의 자기기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49호(2016), 135~157.
-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서울: 북코리아, 2011.
- _____,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79권(2012), 281~301.
- _____, “공동체적 맥락에서 본 목회윤리와 덕의 문제,” 『장신논단』41집(2011), 215~235.
- _____, “복음의 증인됨으로서의 성화: 덕 윤리적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102집(2016), 143~166.
- 박성환, “성품 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Charles L. Campbell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중심으로,” 『설교한국』 3-2호(2011), 9~45
- 오승성, “찰스 L. 캠벨의 탈자유주의적 설교학의 의의와 한계,” 『신학과 실천』26-1호(2011), 287~321
- 이현웅, “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과 실천』53집(2017), 89~120.
- 조상현, “윤리적 행위를 촉구하는 설교,” 『설교한국』4-1집(2012), 118~152.
- Campbell, Charles L. /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_____, / 김운용 역,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
- Hauerwas, Stanley,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Grand Rapids, MI: Brazo Press, 2001.

_____, /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_____, / 홍종락 역, 『한나의 아이』, 서울: IVP, 2016.

_____ and William H. Willimon, /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Pinches, Charles, "Proclaiming: Naming and Describing," in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4.

Joseph J. Kotva, Jr., /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 서울: 긍홍, 2012.

논문투고일: 2017년 06월 21일

심사계시일: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교회됨(being church)을 강조한 하우어워스(S. Hauerwas)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는 예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회됨의 실천을 위한 전략 혹은 방법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글은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펀더멘탈로서의 설교에 관심했던 점에 주목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설교학자 캠벨(Charles L. Campbell)의 윤리설교 개념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교회됨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설교와 윤리의 만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설교자의 윤리와 연관 짓는 경향이 있지만, 설교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촉구하는 윤리에 관심해야 한다. 하우어워스와 캠벨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설교를 요청한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목회자의 윤리적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목회자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교회됨, 즉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윤리적 과제를 지닌 존재이다. 설교를 통해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성품의 존재를 육성함으로써 교회됨을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캠벨에게 수용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캠벨에게서, 설교와 윤리의 만남은 교회됨과 한 세트를 이룬다. 캠벨은 설교를 '윤리적 실천(an ethical practice)'으로 인식하고 설교를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우어워스와 캠벨의 관점이 교회로 하여금 윤리적 성숙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설교를 통한 교회됨을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교회됨, 교회윤리, 설교윤리, 윤리설교, 하우어워스, 캠벨
